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김 의 철†

인하대 경영학부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 네 측면, 즉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보통 때의 나,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나), 주위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친한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의 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낯선 사람, 외국인과 함께 있을 때의 나)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465명(초·중·고 대학생 623명, 성인 842명)이었으며,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로서 두 가지 측면이 부각되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 관계 내 역할의 중요성이었으며, 둘째는 관계 맥락 속에서 유동성있게 변하는 자기의 특징이었다. 이를 토대로 개별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차원 및 자기의 일관성과 유동성 차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 인식, 토착심리, 개별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 자기의 일관성과 유동성, 개인의 역할

* 이 논문은 2006년도 인하대학교의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NHA-34087-01).

* 이 연구를 위한 모든 자료의 수집을 위한 물질적 시간적 노력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 준 함병미 박사의 헌신에 감사한다.

† 교신저자 : 김의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E-mail : uicholk@inha.ac.kr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방송계에서 아나운서를 거쳐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회식자리에서, ‘자기’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혼잣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에게는 전혀 다른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계획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방송 녹화하는 것처럼 가다듬은 목소리로 긴장된 내 모습, 그러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이 질식할 정도로 호통칠 때 거친 목소리를 내 지르는 내 모습, 그러다가도 저녁에 옛날 친구들 만나 오랜만에 술 한잔하면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긴장이 풀린 내 모습, ---”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양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종종 그러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분이 된다. 다른 동물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감각에 기반하는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인간은 자기의 감각을 초월하기도 하고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거울로 비추듯 조망하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 존재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객관적인 자기(me)와 주관적인 자기(I)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알려지는 자(the known)와 아는 자(the knower)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James, 1912). 자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심리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바처럼, 자기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철학적 탐구의 시발이 되어 왔다.

한편 동양의 사상적 기초 중의 하나인 유교 철학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 그 자체보다는, 자기를 성찰하고 닦아 나가는 자기수양(수양론, 修養論)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본성을 실현 시킴으로써 하늘과 일치를 추구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양이 중요하고, 이러한 수양을 통해 인간은 자기를 완성해 나간다고 본다. 따라서 군자는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닦는 사람¹⁾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란 생겨나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고 봄으로써 무아(無我, Nonself)를 강조하고 있다(Seung Sahn, 1997). 그러므로 ‘자기’라는 개념을 조망하는 동양의 정신적 토대는 서양과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대단한 철학자나 종교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자기답게 하고, 자기를 갈고 닦으며, 때로는 자기가 추구하는 모습에 걸맞기 위해, 때로는 자기를 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혼적의 누적이 개인의 자기개념과 삶을 재구성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환경적 자극과 경험을 통해 재발견되고 재구성되면서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인식에서의 문화 차이

사회 문화에 따른 다양한 차이 그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 차이를

1)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 없으니 (君子는 不可以不修身이니) --- 중용 20편 (성백효, 1998).

설명하는 개념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논의할 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원(Hofstede, 1991) 외에도, 최근에 경직성과 유연성(Tightness-Looseness) 차원에 대한 논의도 있다(정태연, 김기범, Gelfand, 2005). 이러한 활발한 논의는 문화 차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양과 동아시아의 문화와 종교, 철학, 심리의 차이(김의철, 박영신, 2001, 2005; Kim, 2003)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자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문화 차이는 중요한 주제이다. 예컨대 Markus와 Kitayama(1991)는 서양에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자기를 강조하는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을 갖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동양 사람들의 자기개념이 서양 사람보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더욱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에서의 자기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인도와 미국 대학생들의 자기개념을 비교한 연구 결과(Dhawan, Roseman, Naidu, Thapa & Rettek, 1995)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이 더욱 자기 평가적인 자기에 대한 진술을 사용하며, 인도 학생들은 보다 사회적인 정체감에 기초한 자기 진술을 하는 차이가 있었다.

자기에 대한 개념에서 문화 차이를 밝히는 경험과학적 연구들 중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다. Suh(2002)의 연구에서 혼

자 있을 때와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의 자기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훨씬 유동적인 자기개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Kashima, Kashima, Farsides, Kim, Strack, Werth와 Yuki(2004)는 자기가 맥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와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서양(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과 동양(일본, 한국)의 대학생들을 비교하였을 때, 동양 사람들이 훨씬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공호와 명정완(2001)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내적 비교의 방법으로, 문화성향에 따라 자의식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개인중심적인 사람은 사적인 자의식이 강하고, 집단중심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적인 자의식이 강하였다. 사적인 자의식이 강한 개인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하게 지각하고, 따라서 독특성과 자기효능감의 상실이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비해 공적인 자의식이 강한 집단중심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유사성을 과대하게 지각하고, 따라서 의존성의 상실이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내적 측면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지만, 집단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타인이나 내집단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기 인식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화 차이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면서, 특별히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탐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탐구: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자기

토착심리학 분야의 발전(Kim & Park, 2004b)과 더불어,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Kim, 2001)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서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박영신, 김의철, 2004)도 누적되어왔다. 최상진(1992)은 문화심리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자기는 서양인의 자기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서 최상진과 김기범(1999)은 한국인의 자기개념이 서구의 self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서양의 entity self와 한국의 mind self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self는 사회적이고 윤리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보다 '나는 어떠해야 한다'가 한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방향과 강도 및 지속도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사람, 높은 기대를 내면화하여 그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 부딪쳐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Park, 2002). 극단적인 좌절 앞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행위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은 뜨거운 관계의 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인식할 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기 속에

부모나 자녀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 있는 관계가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2002)은 대상적인 자기(objective self)와 관찰하는 자기(observing self)의 개념을 확대 발전하여, 한국인의 자기개념을 관계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가 모여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관계를 발견하고, 또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관계의 대상과 공유된 자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라는 개념의 일상적 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차재호와 박재현(1991)은 이러한 '우리' 표현의 심리학적 의미를 집단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한 바도 있다.

김지경과 김명소(2003)는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의미와 구성요인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 특성이 강한 한국 사회는 남녀 모두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자아구성 요인인 것으로 시사되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인식의 토착심리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시도(박영신, 김의철, 2004)되었다. 선행연구들(양계민, 김의철, 2001; 함병미, 박영신, 2001; 함병미, 김의철, 박영신, 2004)에 토대하여, 한국인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과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한국인의 자기는 이질적인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 즉 어려워 피하고 싶은 아버지와 편안하여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아버지의 두 모습을 내포하였다. 둘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죄송함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 인식으로는 편안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세대 집단별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생은 부모에 대해 어리광을 부리는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되는 반면에, 성인들은 아버지에 대해 죄송함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자기를 발견하는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죄송함을 느끼는 자기를, 딸은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기를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한국인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로, 부모로서의 강한 책임감과 자녀에 대한 배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 셋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Hamm, Park & Kim, 2001, 2002; Hamm, Park, Kim & Oh, 2004a, 2004b)을 토대로,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명절 귀성현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자기 찾기’와 ‘한국인의 자기개념에 대한 관계맥락에서의 접근’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논지의 핵심은 한국인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에 대해 인식하기보다,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관계적 맥락을 통해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독립된 개별자로서의 자기개념보다는, 예컨대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부모 또는 자녀로서의 자기개념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양식이 확대되어, 학생인 경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의 역할과 수행 정도에 따라 자기개념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 속에서 자기개념을 확대시켜 나간다. 따라서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서 독특성을 지닌 자기개념보다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에 따른 가변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기 인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갖는 학문적 의미 외에도 자기 인식이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정원과 이영호(1998)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자기 불일치를 보였다. 이상적 자기 수준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적인 자기 수준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자기에 대한 개념의 하위요인들이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전현민, 노명래, 1991)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었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생활에 대한 지각은 죄책감의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기 인식이 대인불안(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등 정신건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모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지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혜자(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강요

적인 힘을 가진다고 지각하는 소수의 피험자들이 부정적인 자기를 경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하였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격려와 성장의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지각의 면에서 설명도 필요하나,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토착심리를 밝히는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자기 인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4; Hamm, Park, Kim & Oh, 2004a; Kim, 2004, 2005)에 토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 네 측면, 즉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보통 때의 나,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나), 주위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친한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의 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낯선 사람, 외국인과 함께 있을 때의 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인식을 포

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과 성인 각각에 대해 이러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 세대집단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과 공통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465명으로서, 학생 623명과 성인 842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과 성인 집단에 남자와 여자가 고루 분포하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및 대학생을 표집하므로써, 초 중 고 대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학업성적 분포는 상(13.2%) 중상(39.2%) 중(30.2%) 중하(10.4%) 하(7.1%)로 구성되었다.

성인 중에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85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08세였다. 학력은 아버지 집단(초졸-4.5%, 중졸-6.7%, 고졸-44.4%, 대졸-36.8%, 대학원 졸-7.6%)과 어머니 집단(초졸-4.3%, 중졸-11.4%, 고졸-67.7%, 대졸-16.2%, 대학원 졸-0.5%) 모두 고졸이 가장 많

표 1. 분석대상

구분	전체	학생					성인
		초	중	고	대	계	
남	646	73	65	62	46	246	400
여	819	75	64	82	156	377	422
계	1,465	148	129	144	202	623	842

았다. 어머니 집단 중에서 전업주부가 75.5%, 직장을 가진 경우가 24.5%로,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 여성이 약 1/4에 해당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거의 정상분포를 나타내었다(상-3.8%, 중상-13.8%, 중-60.3%, 중하-14.5%, 하-7.6%).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학생용과 성인용 질문지로 나누어졌으며 자유반응형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내용은 학생용과 성인용에서 동일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질문 문항들은 크게 네 가지의 틀로 구성되었다: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보통 때의 나,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나), 주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친한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의 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낯선 사람, 외국인과 함께 있을 때의 나).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_____”. 학생용과 성인용은 배경정보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용에서는 소속 학교,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을, 성인용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직장 유무와 구체적인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을 답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내용은 각 문항별로 모두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끼리 분류 정리하여, 자료입력을 위한 틀(coding scheme)을 제작하였다. 3명의 체점자가 자료입력을 위한 틀을 최

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을 숫자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력한 전체 자료를 기초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범주들을 대상으로 다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각 범주에 대한 빈도를 결정하고,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최소한의 전체 빈도가 확보되는 것을 중심으로 범주를 확정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나머지 항목들을 결정하였다. 모든 추가 분석은 청소년 경우에 학교수준별(초, 중, 고, 대)과 성별(남, 녀)로 진행되었으며, 성인은 연령별(39세 이하, 40세 이상)과 성별로 진행되었다.

실시 방법

답임 교사 또는 수업담당 교수의 도움을 받아 표집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그리고 성인집단은 표집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집에 돌아가 부모들의 질문지를 실시하여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거된 질문지들을 성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대상 학생들에게 질문지 실시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과 부모의 질문지 실시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결 과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한국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보통 때의 나,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2,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통 때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학생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활발함'에 대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내성적임' '평범함' '열심히 산다'에 대해 10%-20% 사이의 반응율을 보였고, 이외에도 '역할을 고려함'과 같은 범주들이 5%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학교수준 별로는 성별로는 모두 '활발함'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성인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활발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역할을 고려함'이 '활발함'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평범함' '열심히 산다' '내성적임'과 같은 범주들이 나타났다. 성인집단은 연령별 성별로 반응패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0대에서는 '활발함'이 가장 많이 지적된 반면에, 40대부터는 오히려 '역할을 고려함'이나 '평범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자들 경우에 '평범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여자들은 '활발함'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보통 때 자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보통 때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생이든 성인이든 활발하고 즐겁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10

명 중에 3명 이상이, 성인들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이렇게 자기가 활발하고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스스로에 대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보통 때 역할을 고려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 경향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9%로 다섯 번째로 나타난 범주였는데, 성인들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9.5%로 반응율이 크게 증가하여 두 번째로 부각되는 범주가 되었다. 성인 내에서도 40대 이후가 되면 평소에 자기의 역할을 고려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인식인 것으로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이 활발하고 즐겁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긍정적인 자기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더욱 고려하게 되고, 특별히 40대 이후로 나이가 들면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훨씬 많이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자신을 평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나 성인 집단 모두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의미 있는 범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람들 10명 중 약 1명-2명 정도는 평소에 자기가 평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성인 남자의 경우는 보통 때 자기가 평범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18.6%) 나타났다.

표 2. 보통 때의 나

범주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활발함		185(31.2)	64(43.8)	37(31.8)	34(24.7)	50(26.2)	57(24.9)	128(35.2)
① 활발함		80(13.5)	21(14.3)	14(12.1)	15(11.0)	30(15.8)	18(7.9)	62(17.0)
② 즐거움		41(6.9)	8(5.5)	13(11.2)	5(3.6)	15(7.9)	14(6.1)	27(7.4)
③ 유머 있음		28(4.7)	16(11.0)	4(3.4)	6(4.3)	2(1.0)	6(2.6)	22(6.1)
④ 말이 많음		20(3.4)	8(5.5)	4(3.4)	6(4.3)	2(1.0)	6(2.6)	14(3.9)
⑤ 취미활동		16(2.7)	11(7.5)	2(1.7)	2(1.5)	1(.5)	13(5.7)	3(.8)
2. 내성적임		104(17.7)	26(17.8)	10(8.6)	22(15.9)	46(24.0)	39(17.2)	65(17.9)
① 융통성 없음		37(6.3)	6(4.1)	2(1.7)	12(8.7)	17(8.9)	18(7.9)	19(5.2)
② 내성적임		35(5.9)	9(6.2)	8(6.9)	5(3.6)	13(6.8)	8(3.5)	27(7.4)
③ 산만함		14(2.4)	4(2.7)	-	3(2.2)	7(3.6)	5(2.2)	9(2.5)
④ 싫음		10(1.7)	1(.7)	-	1(.7)	8(4.2)	4(1.8)	6(1.7)
⑤ 신경질적임		8(1.4)	6(4.1)	-	1(.7)	1(.5)	4(1.8)	4(1.1)
3. 평범함		96(16.2)	15(10.3)	29(25.1)	19(13.9)	33(17.4)	37(16.2)	59(16.3)
① 평범함		79(13.3)	12(8.2)	22(19.1)	15(11.0)	30(15.8)	26(11.4)	53(14.6)
② 보통사람		17(2.9)	3(2.1)	7(6.0)	4(2.9)	3(1.6)	11(4.8)	6(1.7)
4. 열심히 산다		68(11.6)	16(11.0)	15(13.0)	12(8.6)	25(13.0)	33(14.5)	35(9.7)
① 열심히 산다		48(8.1)	15(10.3)	10(8.6)	9(6.4)	14(7.3)	23(10.1)	25(6.9)
② 책임감이 강함		8(1.4)	1(.7)	1(.9)	-	6(3.1)	3(1.3)	5(1.4)
③ 침착함		8(1.4)	-	3(2.6)	-	5(2.6)	4(1.8)	4(1.1)
④ 성실함		4(.7)	-	1(.9)	3(2.2)	-	3(1.3)	1(.3)
5. 역할을 고려함		35(5.9)	7(4.8)	6(5.1)	12(8.6)	10(5.3)	19(8.3)	16(4.4)
① 착함		19(3.2)	6(4.1)	4(3.4)	6(4.3)	3(1.6)	12(5.3)	7(1.9)
② 역할을 고려함		9(1.5)	1(.7)	-	5(3.6)	3(1.6)	3(1.3)	6(1.7)
③ 다정다감함		6(1.0)	-	2(1.7)	1(.7)	3(1.6)	3(1.3)	3(.8)
④ 가정적임		1(.2)	-	-	-	1(.5)	1(.4)	-
6. 기타		103(17.4)	18(12.3)	19(16.4)	39(28.3)	27(14.1)	43(18.9)	60(16.5)
① 잠자기		26(4.4)	3(2.1)	3(2.6)	3(2.2)	17(8.9)	11(4.8)	15(4.1)
② 나 자신 일 뿐		26(4.4)	5(3.4)	8(6.9)	11(8.0)	2(1.0)	12(5.3)	14(3.9)
③ 기타		51(8.6)	10(6.8)	8(6.9)	25(18.1)	8(4.2)	20(8.8)	31(8.5)
계		591(100.0)	146(100.0)	116(100.0)	138(100.0)	191(100.0)	228(100.0)	363(100.0)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세 이하	40세 이상	남	여
1. 활발함		156(21.7)	98(24.3)	58(18.3)	53(15.3)	103(27.8)
① 즐거움		54(7.5)	29(7.2)	25(7.9)	20(5.8)	34(9.2)
② 활발함		52(7.2)	35(8.7)	17(5.4)	9(2.6)	43(11.6)
③ 취미활동		38(5.3)	23(5.7)	15(4.7)	17(4.9)	21(5.7)
④ 유머 있음		9(1.3)	8(2.0)	1(.3)	6(1.7)	3(.8)
⑤ 말이 많음		3(.4)	3(.7)	-	1(.3)	2(.5)
2. 역할을 고려함		139(19.5)	80(19.9)	59(18.7)	51(14.6)	88(23.8)
① 역할을 고려함		56(8.0)	37(9.2)	19(6.0)	15(4.3)	41(11.1)
② 다정다감함		42(5.8)	26(6.5)	16(5.1)	15(4.3)	27(7.3)
③ 가정적임		30(4.2)	13(3.2)	17(5.4)	16(4.6)	14(3.8)
④ 착함		11(1.5)	4(1.0)	7(2.2)	5(1.4)	6(1.6)
3. 평범함		119(16.6)	60(15.0)	59(18.7)	64(18.6)	55(14.7)
① 평범함		112(15.6)	56(14.0)	56(17.8)	59(17.2)	53(14.2)
② 보통사람		7(1.0)	4(1.0)	3(.9)	5(1.4)	2(.5)
4. 열심히 산다		104(14.4)	54(13.4)	50(15.8)	63(18.1)	41(11.1)
① 열심히 산다		46(6.4)	27(6.7)	19(6.0)	30(8.6)	16(4.3)
② 성실함		26(3.6)	13(3.2)	13(4.1)	12(3.5)	14(3.8)
③ 책임감이 강함		21(2.9)	8(2.0)	13(4.1)	13(3.7)	8(2.2)
④ 침착함		11(1.5)	6(1.5)	5(1.6)	8(2.3)	3(.8)
5. 내성적임		101(14.1)	59(14.7)	42(13.3)	51(14.7)	50(13.4)
① 내성적임		37(5.2)	18(4.5)	19(6.0)	22(6.3)	15(4.0)
② 융통성 없음		33(4.6)	23(5.7)	10(3.2)	18(5.2)	15(4.0)
③ 싫음		26(3.6)	16(4.0)	10(3.2)	10(2.9)	16(4.3)
④ 신경질적임		5(.7)	2(.5)	3(.9)	1(.3)	4(1.1)
6. 기타		99(13.7)	51(12.7)	48(15.2)	65(18.7)	34(9.2)
① 잠자기		36(5.0)	19(4.7)	17(5.4)	24(6.9)	12(3.2)
② 나 자신 일 뿐		16(2.2)	8(2.0)	8(2.5)	5(1.4)	11(3.0)
③ 기타		47(6.5)	24(6.0)	23(7.3)	36(10.4)	11(3.0)
계		718(100.0)	402(100.0)	316(100.0)	347(100.0)	371(100.0)

표 3.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나

범주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개성 있음		175(33.0)	48(36.9)	33(34.0)	44(35.6)	50(28.1)	69(33.5)	106(33.0)
① 개성 있음		139(26.2)	34(26.1)	23(23.7)	38(30.8)	44(24.7)	52(25.3)	87(27.1)
② 취미/특기가 있음		26(4.9)	11(8.5)	6(6.2)	4(3.2)	5(2.8)	12(5.8)	14(4.3)
③ 외모가 수려함		10(1.9)	3(2.3)	4(4.1)	2(1.6)	1(.6)	5(2.4)	5(1.6)
2. 자신감이 있음		121(22.8)	23(17.7)	19(19.6)	30(24.2)	49(27.6)	45(21.7)	76(23.6)
① 자신감이 있음		78(14.7)	14(10.8)	14(14.4)	22(17.7)	28(15.7)	30(14.5)	48(14.9)
② 자랑스러움		21(4.0)	7(5.4)	3(3.1)	5(4.0)	6(3.4)	11(5.3)	10(3.1)
③ 노력함		15(2.8)	2(1.5)	2(2.1)	2(1.6)	9(5.1)	4(1.9)	11(3.4)
④ 팬찮음		7(1.3)	-	-	1(.9)	6(3.4)	-	7(2.2)
3. 생각이 깊음		89(16.8)	26(20.0)	16(16.5)	18(14.4)	29(16.2)	39(18.7)	50(15.5)
① 재미있음		30(5.7)	14(10.8)	8(8.2)	3(2.4)	5(2.8)	17(8.2)	13(4.0)
② 조용함		23(4.3)	8(6.2)	2(2.1)	3(2.4)	10(5.6)	9(4.3)	14(4.3)
③ 생각이 깊음		16(3.0)	2(1.5)	3(3.1)	6(4.8)	5(2.8)	5(2.4)	11(3.4)
④ 자기계발에 힘씀		10(1.9)	-	1(1.0)	4(3.2)	5(2.8)	4(1.9)	6(1.9)
⑤ 착함		10(1.9)	2(1.5)	2(2.1)	2(1.6)	4(2.2)	4(1.9)	6(1.9)
4. 불만스러움		80(15.2)	7(5.4)	17(17.5)	21(17.0)	35(19.7)	23(11.1)	57(17.6)
① 불만스러움		39(7.4)	4(3.1)	9(9.3)	11(8.9)	15(8.4)	13(6.3)	26(8.1)
② 개성 없음		19(3.6)	1(.8)	4(4.1)	5(4.0)	9(5.1)	7(3.4)	12(3.7)
③ 수다스러움		15(2.8)	2(1.5)	4(4.1)	4(3.2)	5(2.8)	3(1.4)	12(3.7)
④ 자존심이 강함		4(.8)	-	-	1(.9)	3(1.7)	-	4(1.2)
⑤ 성격이 급함		3(.6)	-	-	-	3(1.7)	-	3(.9)
5. 그저 그렇다		43(8.2)	20(15.4)	7(7.2)	7(5.6)	9(5.0)	22(10.7)	21(6.6)
① 그저 그렇다		30(5.7)	13(10.0)	7(7.2)	3(2.4)	7(3.9)	14(6.8)	16(5.0)
② 나태함		13(2.5)	7(5.4)	-	4(3.2)	2(1.1)	8(3.9)	5(1.6)
6. 기타		21(4.0)	6(4.6)	5(5.2)	4(3.2)	6(3.4)	9(4.3)	12(3.7)
계		529(100.0)	130(100.0)	97(100.0)	124(100.0)	178(100.0)	207(100.0)	322(100.0)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자신감이 있음		142(23.7)	70(21.2)	72(26.7)	78(26.7)	64(21.3)
① 자신감이 있음		97(16.2)	43(13.0)	54(20.0)	56(19.3)	41(14.0)
② 노력함		39(6.5)	24(7.3)	15(5.6)	18(6.1)	21(6.8)
③ 팬찮음		5(.8)	3(.9)	2(.7)	3(1.0)	2(.5)
④ 자랑스러움		1(.2)	-	1(.4)	1(.3)	-
2. 불만스러움		129(21.5)	74(22.3)	55(20.3)	61(20.8)	68(22.4)
① 불만스러움		72(12.0)	42(12.7)	30(11.1)	32(10.9)	40(13.6)
② 개성 없음		22(3.7)	10(3.0)	12(4.4)	12(4.1)	10(3.2)
③ 자존심이 강함		18(3.0)	8(2.4)	10(3.7)	8(2.7)	10(3.2)
④ 성격이 급함		15(2.5)	12(3.6)	3(1.1)	9(3.1)	6(1.9)
⑤ 수다스러움		2(.3)	2(.6)	-	-	2(.5)
3. 개성 있음		116(19.3)	60(18.3)	56(20.7)	59(20.1)	57(17.9)
① 개성 있음		97(16.2)	53(16.2)	44(16.3)	51(17.4)	46(14.5)
② 취미/특기가 있음		17(2.8)	7(2.1)	10(3.7)	8(2.7)	9(2.9)
③ 외모가 수려함		2(.3)	-	2(.7)	-	2(.5)
4. 생각이 깊음		105(17.4)	64(19.2)	41(15.2)	39(13.3)	66(21.3)
① 생각이 깊음		33(5.5)	22(6.6)	11(4.1)	11(3.8)	22(7.1)
② 자기계발에 힘씀		27(4.5)	16(4.8)	11(4.1)	12(4.1)	15(4.9)
③ 착함		20(3.3)	14(4.2)	6(2.2)	6(2.0)	14(4.5)
④ 조용함		17(2.8)	8(2.4)	9(3.3)	8(2.7)	9(2.9)
⑤ 재미있음		8(1.3)	4(1.2)	4(1.5)	2(.7)	6(1.9)
5. 그저 그렇다		67(11.1)	42(12.7)	25(9.3)	35(11.9)	32(10.3)
① 그저 그렇다		44(7.3)	26(7.9)	18(6.7)	22(7.5)	22(7.1)
② 나태함		23(3.8)	16(4.8)	7(2.6)	13(4.4)	10(3.2)
6. 기타		42(7.0)	21(6.3)	21(7.8)	21(7.2)	21(6.8)
계		601(100.0)	331(100.0)	270(100.0)	293(100.0)	308(100.0)

표 3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의 경우에 ‘개성있음’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음’이 20% 이상을, ‘생각이 깊음’과 ‘불만스러움’ 및 ‘그저 그렇다’가 각각 10%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별로나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모든 하위집단에서 ‘개성있음’에 대한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한편 ‘불만스러움’에 대한 반응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증가하였으며, 대학생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불만스러움’도 20% 이상으로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성있음’ ‘생각이 깊음’ ‘그저 그렇다’가 모두 1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는 ‘불만스러움’과 ‘자신감이 있음’이 각각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음’ ‘개성있음’ ‘불만스러움’이 각각 2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도 비록 반응율의 큰 차이는 없지만, 남자는 ‘자신감이 있음’이, 여자는 ‘불만스러움’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지각의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가 개성이 있다든가, 자신감이 있다든가, 생각이 깊다와 같은 식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등의 긍정적인 자기 인식은 학생과 성인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러한 불만스러움에 대한 지각은 학생보다 성인집단에서 더욱 많았다. 학생들은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네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성인들은 두 번째로서 훨씬 그러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가 특별한 점이 없고 그저그렇다는 반응이 학생과 성인 모두에서 10% 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 눈을 끈다.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기록하라는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그저그렇다는 반응을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응답자들이 자기를 매우 평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의 표 2에서 보통 때의 자기를 기술하게 하였을 때, 학생과 성인 모두 16% 이상이 자기를 평범하다고 응답한 사실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혼자 있을 때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외로움’이라는 반응을 40% 가까이 응답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경우가 20% 가 넘으며, 그 다음으로 ‘사색을 함’이 10% 이상이었으며, 이외에 ‘편안함’ ‘잠자기’와 같은 반응 범주들이 있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교생들의 경우는 50% 이상이 ‘외로움’을 지적함으로써, 어린 초등학생들은 2명 중에 1명이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대 학생들은 30% 이상을 약간 넘음으로써 초등

표 4. 혼자 있을 때의 나

범주 \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외로움	217(36.1)	73(50.3)	41(33.8)	44(32.1)	59(30.3)	96(41.6)	121(32.9)
① 외로움	167(27.8)	57(39.2)	32(26.3)	31(22.7)	47(24.1)	72(31.2)	95(25.9)
② 싫음	32(5.3)	13(9.0)	6(5.0)	6(4.3)	7(3.6)	15(6.5)	17(4.6)
③ 고독함	16(2.7)	1(.7)	3(2.5)	7(5.1)	5(2.6)	7(3.0)	9(2.4)
④ 주변사람 생각	2(.3)	2(1.4)	-	-	-	2(.9)	-
2. 여가활동	129(21.5)	37(25.6)	33(27.3)	40(28.8)	19(9.7)	53(22.9)	76(20.7)
① 음악감상	30(5.0)	3(2.1)	6(5.0)	13(9.4)	8(4.1)	10(4.3)	20(5.4)
② TV시청	27(4.5)	13(9.0)	10(8.3)	1(.7)	3(1.5)	8(3.5)	19(5.2)
③ 독서를 함	26(4.3)	10(6.9)	4(3.3)	9(6.5)	3(1.5)	18(7.8)	8(2.2)
④ 여행하기	18(3.0)	-	1(.8)	13(9.4)	4(2.1)	3(1.3)	15(4.1)
⑤ 게임하기	16(2.7)	7(4.8)	7(5.8)	2(1.4)	-	7(3.0)	9(2.4)
⑥ 컴퓨터하기	12(2.0)	4(2.8)	5(4.1)	2(1.4)	1(.5)	7(3.0)	5(1.4)
3. 사색을 함	84(14.1)	6(4.1)	12(9.9)	28(20.4)	38(19.5)	20(8.6)	64(17.4)
① 사색을 함	83(13.9)	5(3.4)	12(9.9)	28(20.4)	38(19.5)	19(8.2)	64(17.4)
② 고민에 빠짐	1(.2)	1(.7)	-	-	-	1(.4)	-
4. 편안함	58(9.7)	7(4.8)	12(9.9)	11(7.9)	28(14.3)	18(7.8)	40(10.8)
① 편안함	41(6.9)	6(4.1)	9(7.4)	9(6.5)	17(8.7)	17(7.4)	24(6.5)
② 좋음	8(1.3)	-	2(1.7)	1(.7)	5(2.6)	1(.4)	7(1.9)
③ 즐거움	4(.7)	1(.7)	1(.8)	-	2(1.0)	-	4(1.1)
④ 여유 있음	3(.5)	-	-	-	3(1.5)	-	3(.8)
⑤ 행복함	2(.3)	-	-	1(.7)	1(.5)	-	2(.5)
5. 잠자기	36(6.0)	8(5.5)	6(5.0)	9(6.5)	13(6.7)	15(6.5)	21(5.7)
6. 기타	75(12.6)	14(9.7)	17(14.1)	6(4.3)	38(19.5)	29(12.6)	46(12.5)
① 놀기	31(5.2)	8(5.5)	15(12.4)	4(2.9)	4(2.1)	17(7.4)	14(3.8)
② 일/공부	13(2.2)	2(1.4)	2(1.7)	2(1.4)	7(3.6)	1(.4)	12(3.3)
③ 기타	31(5.2)	4(2.8)	-	-	27(13.8)	11(4.8)	20(5.4)
계	599(100.0)	145(100.0)	121(100.0)	138(100.0)	195(100.0)	231(100.0)	368(100.0)

범주 \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외로움	212(27.4)	120(27.4)	92(27.1)	109(29.2)	103(25.7)
① 외로움	134(17.3)	75(17.2)	59(17.3)	71(19.0)	63(15.8)
② 고독함	38(4.9)	18(4.1)	20(5.9)	25(6.7)	13(3.2)
③ 싫음	21(2.7)	15(3.4)	6(1.8)	6(1.6)	15(3.7)
④ 주변사람 생각	19(2.5)	12(2.7)	7(2.1)	7(1.9)	12(3.0)
2. 사색을 함	188(24.1)	110(25.2)	78(23.1)	98(26.3)	90(22.4)
① 사색을 함	173(22.2)	101(23.1)	72(21.3)	95(25.5)	78(19.4)
② 고민에 빠짐	15(1.9)	9(2.1)	6(1.8)	3(.8)	12(3.0)
3. 여가활동	166(21.5)	99(22.7)	67(19.9)	78(20.9)	88(21.9)
① 독서를 함	58(7.5)	36(8.2)	22(6.5)	31(8.3)	27(6.7)
② 음악감상	44(5.7)	25(5.7)	19(5.6)	8(2.1)	10(2.5)
③ 여행하기	27(3.5)	16(3.7)	11(3.3)	17(4.6)	36(9.0)
④ TV시청	19(2.5)	10(2.3)	9(2.7)	11(2.9)	8(2.0)
⑤ 컴퓨터하기	10(1.3)	7(1.6)	3(.9)	4(1.1)	6(1.5)
⑥ 게임하기	5(.6)	3(.7)	2(.6)	4(1.1)	1(.2)
⑦ 운동하기	3(.4)	2(.5)	1(.3)	3(.8)	-
4. 편안함	71(9.2)	40(9.1)	31(9.2)	25(6.8)	46(11.4)
① 편안함	47(6.1)	27(6.2)	20(5.9)	19(5.1)	28(7.0)
② 좋음	10(1.3)	5(1.1)	5(1.5)	1(.3)	9(2.2)
③ 즐거움	10(1.3)	8(1.8)	2(.6)	3(.8)	7(1.7)
④ 행복함	3(.4)	-	3(.9)	1(.3)	2(.5)
⑤ 여유 있음	1(.1)	-	1(.3)	1(.3)	-
5. 잠자기	51(6.6)	28(6.4)	23(6.8)	24(6.4)	27(6.7)
6. 기타	87(11.2)	40(9.2)	47(13.9)	39(10.4)	48(11.9)
① 일/공부	29(3.7)	13(3.0)	16(4.7)	8(2.1)	21(5.2)
② 놀기	11(1.4)	3(.7)	8(2.4)	6(1.6)	5(1.2)
③ 기타	47(6.1)	24(5.5)	23(6.8)	25(6.7)	22(5.5)
계	775(100.0)	437(100.0)	338(100.0)	373(100.0)	402(100.0)

학생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이들 집단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반응율은 ‘외로움’이었다. 초등학교보다 중 고 대학생들은 혼자 있을 때 ‘사색을 함’이나 ‘편안함’을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성별로 남자나 여자 모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등 전체적인 반응 패턴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반응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여학생들은 ‘사색을 한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성인 집단에서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이라는 반응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색을 함’ ‘여가활동’이 모두 20%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편안함’과 ‘잠자기’도 10% 미만이지만 의미있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경향은 성인 연령집단별로는 성별로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두 가지의 특징적인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다. 비록 초등학교들이 가장 이러한 반응을 많이 하고 중학생 이상 성인 집단에서는 초등학교만큼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들은 2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다른 연령집단에서는 성인들조차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생과 성인집단 모두 10% 가까이 됨으로써 10명 중 1명 정도가 편안함을 느끼므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의 경향이 학생들에게서 더욱 높고 성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성인(24.1%)들은 학생(14.1%)보다 혼자 있을 때 사색을 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

한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으로서의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가족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학생과 성인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5에서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학생과 성인들이 자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회피함’과 ‘어리광’이 모두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편안함’과 ‘외로움’이 10% 이상으로 나왔으며, 이외에 5% 미만이나 ‘대화’ ‘무관심’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수준별로는 반응에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생 경우는 ‘편안함’과 ‘어리광’이 각각 30% 이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중학생은 ‘어리광’이 30% 이상의 반응을 보이나,

표 5.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회피함		191(31.8)	35(24.1)	33(26.3)	51(36.4)	72(37.9)	79(33.0)	112(31.1)
① 말이 없음		58(9.7)	8(5.5)	12(9.5)	18(12.9)	20(10.5)	22(9.2)	36(9.9)
② 회피함		55(9.2)	13(9.0)	11(8.7)	15(10.7)	16(8.4)	23(9.6)	32(8.9)
③ 긴장됨		29(4.8)	5(3.4)	2(1.6)	5(3.6)	17(8.9)	11(4.6)	18(5.0)
④ 대하기 어려움		21(3.5)	4(2.8)	7(5.6)	5(3.6)	5(2.6)	11(4.6)	10(2.8)
⑤ 위축됨		14(2.3)	5(3.4)	1(.9)	5(3.6)	3(1.6)	8(3.3)	6(1.7)
⑥ 불편		14(2.3)	-	-	3(2.1)	11(5.8)	4(1.7)	10(2.8)
2. 어리광		189(31.4)	47(32.4)	41(32.5)	42(29.9)	59(31.1)	74(31.0)	115(31.7)
① 어리광		88(14.6)	16(11.0)	13(10.3)	27(19.2)	32(16.8)	18(7.5)	70(19.3)
② 능력을 인정함		59(9.8)	21(14.5)	19(15.1)	9(6.4)	10(5.3)	35(14.7)	24(6.6)
③ 의지함		42(7.0)	10(6.9)	9(7.1)	6(4.3)	17(8.9)	21(8.8)	21(5.8)
3. 편안함		103(17.0)	49(33.8)	30(23.8)	11(7.9)	13(6.8)	42(17.6)	61(16.8)
① 편안함		63(10.4)	33(22.8)	16(12.7)	7(5.0)	7(3.7)	21(8.8)	42(11.6)
② 좋음		40(6.7)	16(11.0)	14(11.1)	4(2.9)	6(3.2)	21(8.8)	19(5.2)
4. 죄송함		74(12.5)	6(4.2)	11(8.7)	25(17.9)	32(16.8)	26(10.9)	48(13.3)
① 죄송함		57(9.5)	2(1.4)	11(8.7)	21(15.0)	23(12.1)	22(9.2)	35(9.7)
② 효도함		13(2.2)	4(2.8)	-	3(2.1)	6(3.2)	4(1.7)	9(2.5)
③ 불쌍함		3(.5)	-	-	1(.7)	2(1.1)	-	3(.8)
④ 아버지 걱정		1(.2)	-	-	-	1(5)	-	1(.3)
5. 대화		20(3.3)	4(2.8)	6(4.8)	5(3.6)	5(2.6)	8(3.3)	12(3.3)
6. 무관심		16(2.7)	1(.7)	2(1.6)	5(3.6)	8(4.2)	5(2.1)	11(3.0)
7. 기타		8(1.3)	3(2.1)	3(2.3)	1(.7)	1(.5)	5(2.1)	3(.8)
계		601(100.0)	145(100.0)	126(100.0)	140(100.0)	190(100.0)	239(100.0)	362(100.0)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회피함		132(21.6)	80(23.1)	52(19.5)	60(20.1)	72(22.9)
① 회피함		32(5.2)	20(5.8)	12(4.5)	17(5.7)	15(4.8)
② 말이 없음		26(4.2)	16(4.6)	10(3.8)	11(3.7)	15(4.8)
③ 대하기 어려움		24(3.9)	16(4.6)	8(3.0)	10(3.4)	14(4.5)
④ 위축됨		21(3.4)	12(3.5)	9(3.4)	10(3.4)	11(3.5)
⑤ 긴장됨		15(2.5)	8(2.3)	7(2.5)	6(2.0)	9(2.9)
⑥ 불편		14(2.3)	8(2.3)	6(2.3)	6(2.0)	8(2.5)
2. 어리광		126(20.6)	70(20.2)	56(21.1)	63(21.1)	63(20.1)
① 어리광		53(8.7)	35(10.1)	18(6.8)	19(6.4)	34(10.8)
② 능력을 인정함		45(7.4)	16(4.6)	29(10.9)	28(9.4)	17(5.4)
③ 의지함		28(4.6)	19(5.5)	9(3.4)	16(5.4)	12(3.8)
3. 죄송함		111(18.1)	59(17.1)	52(19.5)	56(18.8)	55(17.5)
① 죄송함		53(8.7)	31(9.0)	22(8.3)	32(10.7)	21(6.7)
② 효도함		24(3.9)	11(3.2)	13(4.9)	7(2.3)	17(5.4)
③ 아버지 걱정		18(2.9)	11(3.2)	7(2.5)	11(3.7)	7(2.2)
④ 불쌍함		16(2.6)	6(1.7)	10(3.8)	6(2.0)	10(3.2)
4. 편안함		98(16.0)	58(16.8)	40(15.1)	41(13.8)	57(18.2)
① 편안함		69(11.3)	38(11.0)	31(11.7)	31(10.4)	38(12.1)
② 좋음		29(4.7)	20(5.8)	9(3.4)	10(3.4)	19(6.1)
5. 무관심		33(5.4)	16(4.6)	17(6.4)	17(5.7)	16(5.1)
6. 대화		32(5.2)	18(5.2)	14(5.3)	32(10.7)	-
7. 기타		80(13.1)	45(13.0)	35(13.1)	29(9.7)	51(16.2)
계		612(100.0)	346(100.0)	266(100.0)	298(100.0)	314(100.0)

그 다음으로 ‘회피함’과 ‘편안함’이 2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모두 ‘회피함’이 35%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며 어리광을 부리지만, 중학생의 경우에 어리광을 부리는 경우가 많지만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편안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이후가 되면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회피하는 경향이 매우 현저해지고, 이와 대조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적어지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모두 ‘회피함’과 ‘어리광’에 대한 반응율이 30% 이상의 비슷한 반응패턴을 나타내었다.

성인집단에서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보면 ‘회피함’과 ‘어리광’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죄송함’ ‘편안함’ 또한 20%에 가까운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관심’과 ‘대화’도 각각 5% 이상의 의미있는 반응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는 ‘회피함’이, 40대 이상에서는 ‘어리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회피함’을 여자가 ‘어리광’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회피함’과 ‘어리광’은 반응율이 큰 차이가 없고 모두 20% 내외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워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

한 비율로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자기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 경우에 ‘회피함’과 ‘어리광’에 대해 각각 30% 이상이, 성인들 경우는 이 두 범주에 대해 각각 20% 이상이 응답한 사실에 기초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서 발달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어리광을 많이 부리지만, 중학교 시기가 되면 의지하며 어리광을 부리는 마음은 계속 강하게 있지만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편안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 더욱 큰 변화가 와서,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며, 아버지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의지하며 어리광을 부리는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다. 고등학생 시기에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회피하는 경향의 증가와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생 시기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하였다.

셋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으로 죄송함도 매우 중요한 범주로 드러났다.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효도하고자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며, 아버지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종합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죄송함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 경우에 네 번째로 지적되었는데 성인들은 세 번째로 지적됨으로써, 성인들이 학

표 6.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편안함		215(35.1)	59(40.4)	47(37.9)	37(26.0)	72(36.2)	93(38.9)	122(32.8)
① 편함		124(20.2)	32(21.9)	28(22.6)	23(16.2)	41(20.6)	57(23.8)	67(18.0)
② 친구 같음		51(8.3)	19(13.0)	11(8.9)	8(5.6)	13(6.5)	27(11.3)	24(6.5)
③ 따뜻함		29(4.7)	7(4.8)	4(3.2)	6(4.2)	12(6.0)	8(3.3)	21(5.6)
④ 귀엽다		11(1.8)	1(.7)	4(3.2)	-	6(3.0)	1(.5)	10(2.7)
2. 어리광		167(27.3)	29(19.9)	30(24.2)	48(33.8)	60(30.2)	57(23.8)	110(29.6)
① 어리광을 부림		112(18.3)	21(14.4)	15(12.1)	36(25.4)	40(20.1)	40(16.7)	72(19.4)
② 하고 싶은 대로 함		39(6.4)	4(2.7)	12(9.7)	8(5.6)	15(7.5)	11(4.6)	28(7.5)
③ 마음 고생시켜 드림		16(2.6)	4(2.7)	3(2.4)	4(2.8)	5(2.5)	6(2.5)	10(2.7)
3. 효도함		87(14.4)	23(15.8)	12(9.7)	20(14.1)	32(16.0)	31(13.0)	56(15.1)
① 효도함		69(11.4)	21(14.4)	10(8.1)	16(11.3)	22(11.0)	26(10.9)	43(11.6)
② 부모에 대한 걱정		7(1.1)	1(.7)	1(.8)	2(1.4)	3(1.5)	1(.5)	6(1.6)
③ 죄송함		5(.8)	1(.7)	1(.8)	-	3(1.5)	2(.8)	3(.8)
④ 든든한 자녀역할		3(.5)	-	-	1(.7)	2(1.0)	-	3(.8)
⑤ 소중함		3(.5)	-	-	1(.7)	2(1.0)	2(.8)	1(.3)
4. 따분함		84(13.7)	24(16.4)	28(22.6)	21(14.8)	11(5.5)	45(18.9)	39(10.4)
① 따분함		57(9.3)	18(12.3)	19(15.3)	13(9.2)	7(3.5)	35(14.6)	22(5.9)
② 짜증남		18(2.9)	4(2.7)	5(4.0)	7(4.9)	2(1.0)	6(2.5)	12(3.2)
③ 갈등 있음		9(1.5)	2(1.4)	4(3.2)	1(.7)	2(1.0)	4(1.8)	5(1.3)
5. 대화		58(9.5)	11(7.5)	7(5.6)	16(11.3)	24(12.1)	13(5.4)	45(12.1)
계		611(100.0)	146(100.0)	124(100.0)	142(100.0)	199(100.0)	239(100.0)	372(100.0)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편안함		292(37.7)	167(38.6)	125(36.7)	151(39.4)	141(36.1)
① 편함		166(21.4)	100(23.1)	66(19.3)	79(20.7)	87(22.3)
② 친구 같음		92(11.9)	52(12.0)	40(11.8)	58(15.1)	34(8.7)
③ 귀엽다		24(3.1)	10(2.3)	14(4.1)	10(2.6)	14(3.6)
④ 따뜻함		10(1.3)	5(1.2)	5(1.5)	4(1.0)	6(1.5)
2. 효도함		176(22.7)	104(23.9)	72(21.2)	74(19.1)	102(26.2)
① 효도함		102(13.2)	54(12.4)	48(14.1)	42(10.9)	60(15.4)
② 죄송함		27(3.5)	21(4.8)	6(1.8)	9(2.3)	18(4.6)
③ 든든한 자녀역할		22(2.8)	12(2.8)	10(2.9)	14(3.6)	8(2.1)
④ 소중함		15(1.9)	9(2.1)	6(1.8)	5(1.3)	10(2.6)
⑤ 부모에 대한 걱정		10(1.3)	8(1.8)	2(.6)	4(1.0)	6(1.5)
3. 어리광		131(17.0)	68(15.7)	63(18.5)	67(17.4)	64(16.4)
① 어리광을 부림		104(13.5)	55(12.7)	49(14.4)	52(13.5)	52(13.3)
② 하고 싶은 대로 함		15(1.9)	6(1.4)	9(2.6)	8(2.1)	7(1.8)
③ 마음 고생시켜 드림		12(1.6)	7(1.6)	5(1.5)	7(1.8)	5(1.3)
4. 따분함		116(15.0)	61(14.0)	55(16.2)	68(17.8)	48(12.3)
① 따분함		67(8.7)	34(7.8)	33(9.7)	39(10.2)	28(7.2)
② 짜증남		30(3.9)	13(3.0)	17(5.0)	16(4.2)	14(3.6)
③ 갈등 있음		19(2.5)	14(3.2)	5(1.5)	13(3.4)	6(1.5)
5. 대화		48(6.2)	27(6.2)	21(6.2)	18(4.7)	30(7.7)
6. 기타		11(1.4)	7(1.6)	4(1.2)	6(1.6)	5(1.3)
계		774(100.0)	434(100.0)	340(100.0)	384(100.0)	390(100.0)

생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죄송하다는 자기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의 경우에 '편안함'이 3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어리광'이 25% 이상이었으며, 이외에 '효도함'과 '따분함' '대화'도 각각 10%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초 중 대학생은 모두 '편안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고등학생은 '어리광'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나, '편안함' 역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중학생이 다른 집단과 현저한 차이는 '효도함'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그 대신 '따분함'에 대한 반응이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편안함'에 대해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어리광'이 많이 지적됨으로써, 비슷한 반응패턴을 나타내었다.

성인집단의 반응을 보면, 전체적으로 '편안함'이 거의 40%에 가까운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효도함'에 대해 20% 이상, '어리광'과 '따분함'이 각각 10% 이상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의 순서나 연령별로나 성별로나 모두 동일하였다. 즉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으로서 '편안함'과 '효도함'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으로 부각되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과 성인 모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자기 인식은 따뜻하다든가 친구같은 즉 편안한 느낌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

생과 성인 모두에서 '편안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으며, 각각 35%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임으로써, 한국 사람 10명 중에서 3명-4명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자기자신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으로서 학생들은 편안함 다음으로 어리광을 부린다는 반응을 많이 하는 반면에, 성인은 효도한다는 반응이 각각 20% 이상으로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어리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면, 성인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동시에 죄송하고 든든한 자녀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효도를 하게 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자녀로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든가 또는 효도해야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따분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따분하다는 인식은 학생과 성인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그러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따분하고 짜증나며 어머니와 갈등을 느끼는 마음은, 특별히 중학교 시기에 현저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즐거움'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확인되고, '책임감'과 '자상함'도 모두 20% 이상의 높은 반응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이든 40대 이상이든 모두 '즐거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책임감'과 '자상함'을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

표 7. 자녀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즐거움		232(28.6)	131(28.9)	101(28.2)	106(26.1)	126(31.0)
① 즐거움		105(13.0)	59(13.0)	46(12.9)	53(13.1)	52(12.8)
② 만족함		60(7.4)	32(7.1)	28(7.8)	29(7.1)	31(7.6)
③ 편안함		48(5.9)	31(6.8)	17(4.7)	16(3.9)	32(7.9)
④ 기대감		19(2.3)	9(2.0)	10(2.8)	8(2.0)	11(2.7)
2. 책임감		207(25.4)	112(24.7)	95(26.4)	111(27.3)	96(23.5)
① 책임감		87(10.7)	51(11.3)	36(9.9)	54(13.3)	33(8.1)
② 자녀교육		76(9.3)	36(7.9)	40(11.2)	34(8.4)	42(10.3)
③ 미안함		34(4.2)	20(4.4)	14(3.9)	16(3.9)	18(4.4)
④ 건강 염려		10(1.2)	5(1.1)	5(1.4)	7(1.7)	3(.7)
3. 자상함		192(23.6)	110(24.3)	82(22.8)	96(23.7)	96(23.7)
① 자상함		75(9.2)	38(8.4)	37(10.3)	45(11.1)	30(7.4)
② 대화함		71(8.7)	38(8.4)	33(9.2)	28(6.9)	43(10.6)
③ 친구 같음		46(5.7)	34(7.5)	12(3.3)	23(5.7)	23(5.7)
4. 근엄함		79(9.7)	43(9.5)	36(9.9)	48(11.8)	31(7.6)
① 근엄함		35(4.3)	18(4.0)	17(4.7)	22(5.4)	13(3.2)
② 무서움		22(2.7)	10(2.2)	12(3.3)	14(3.4)	8(2.0)
③ 싫음		22(2.7)	15(3.3)	7(1.9)	12(3.0)	10(2.4)
5. 사랑스러움		64(7.9)	38(8.4)	26(7.2)	26(6.4)	38(9.3)
6. 기타		39(4.8)	19(4.2)	20(5.5)	19(4.7)	20(4.9)
① 음식준비		12(1.5)	9(2.0)	3(.8)	4(1.0)	8(2.0)
② 기타		27(3.3)	10(2.2)	17(4.7)	15(3.7)	12(2.9)
계		813(100.0)	453(100.0)	360(100.0)	406(100.0)	407(100.0)

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책임감’을, 여자는 ‘즐거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으나, ‘즐거움’ ‘책임감’ ‘자상함’ 모두에서 20%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자기 인식은 즐거움이다. 즉 자녀에 대해 만족하고 편안하며 기대하는 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책임감은 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부모로서 모든 것을 더

잘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과 관련된 부모의 책임감이 매우 컸다. 또한 자녀와 대화하면서 친구와 같이 자상하게 자녀를 대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인식도 매우 많았다. 이외에 근엄함이나 사랑스러움과 같은 반응들도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범주는 ‘편안함’으로서 거의 4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을 느낌’ 가족을 위함 ‘거리감’ ‘믿음’이 순서대로 지적되었는데,

표 8.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편안함		298(37.7)	174(40.3)	124(34.4)	143(35.9)	155(39.2)
① 편안함		230(29.1)	135(31.2)	95(26.4)	105(26.3)	125(31.6)
② 친구 같음		48(6.1)	27(6.3)	21(5.8)	23(5.8)	25(6.3)
③ 따뜻함		20(2.5)	12(2.8)	8(2.2)	15(3.8)	5(1.3)
2. 사랑을 느낌		133(16.8)	69(15.9)	64(17.8)	66(16.6)	67(17.0)
① 사랑을 느낌		104(13.1)	55(12.7)	49(13.6)	52(13.1)	52(13.2)
② 좋음		29(3.7)	14(3.2)	15(4.2)	14(3.5)	15(3.8)
3. 가족을 위함		101(12.8)	55(12.7)	46(12.8)	57(14.4)	44(11.2)
① 가족을 위한 일		45(5.7)	24(5.6)	21(5.8)	35(8.8)	10(2.5)
② 속마음 열기		42(5.3)	23(5.3)	19(5.3)	16(4.0)	26(6.6)
③ 가계, 경제		6(.8)	4(.9)	2(.6)	4(1.0)	2(.5)
④ 미래		4(.5)	1(.2)	3(.8)	1(.3)	3(.8)
⑤ 자식 교육		4(.5)	3(.7)	1(.3)	1(.3)	3(.8)
4. 거리감		99(12.4)	52(12.1)	47(13.1)	42(10.6)	57(14.4)
① 거리감		36(4.5)	25(5.8)	11(3.1)	16(4.0)	20(5.1)
② 싸움		31(3.9)	16(3.7)	15(4.2)	12(3.0)	19(4.8)
③ 남편/아내		19(2.4)	6(1.4)	13(3.6)	9(2.3)	10(2.5)
④ 싫음		13(1.6)	5(1.2)	8(2.2)	5(1.3)	8(2.0)
5. 믿음		93(11.7)	46(10.6)	47(13.0)	59(14.9)	34(8.6)
① 믿음		38(4.8)	20(4.6)	18(5.0)	17(4.3)	21(5.3)
② 책임감		23(2.9)	11(2.5)	12(3.3)	19(4.8)	4(1.0)
③ 성실함		20(2.5)	8(1.9)	12(3.3)	14(3.5)	6(1.5)
④ 미안함		12(1.5)	7(1.6)	5(1.4)	9(2.3)	3(.8)
6. 기타		68(8.6)	36(8.4)	32(8.9)	30(7.6)	38(9.6)
① 둘만의 시간		27(3.4)	15(3.5)	12(3.3)	13(3.3)	14(3.5)
② 기타		41(5.2)	21(4.9)	20(5.6)	17(4.3)	24(6.1)
계		792(100.0)	432(100.0)	360(100.0)	397(100.0)	395(100.0)

각각 10%-20% 사이의 반응율을 보였다. 하위 집단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성별로는 ‘편안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성인들은 배우자와 같이 있을 때 편안하다는 자기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랑을 느낀다든가, 가족을 위한다든가, 서로를 믿는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그러나 거리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12.4%나 됨으로써 부부간에 싸운다든가 싫다든가 거리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9에서 표 12에 제시되

어 있다. 여기에서 주위 사람이란 가족을 제외한 가까운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혀 낯선 타인들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학생 분석대상들에게는 친한 친구와 선생님을, 성인 분석대상들에게는 친한 친구와 직장 상사 및 부하 직원과 관련된 자기 인식을 분석하였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집단의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40% 이상이 '편안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화'가 20% 이상을, '술' '고마움'이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별로는 고등학생에서만 '대화'와 '편안함'이 모두 30% 내외의 반응율을 보이고, 나머지 초·중·고 대학생 집단은 모두 '편안함'이 50% 내외의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을 '대화'가 두 번째로 나타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서부터 현저하게 '술'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편안함'에 대해 4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대화' '술'에 대한 반응순서도 동일하였다.

성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편안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화'와 '술'이 20%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3개 핵심 범주들의 순서가 학생과 성인에서 일치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편안함'이, 성인들의 경우는 '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이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은 편안함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인식은 학생과 성인 모두 동일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세 번째로 술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는 친한 친구가 술을 매개로 맺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친구가 걱정된다든가, 친구에 대한 믿음과 같은 인식이 친한 친구와 관련된 자기 인식으로 포함되었다.

표 10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긴장감'이 30% 가까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이외에 '무덤덤함' '학업성취 지향' '예의를 지킴' '재미있음'과 같은 반응들이 각각 10%-20%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학교수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초·중·고 대학생 집단 모두 '긴장감'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성별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긴장감'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은 그 다음으로 '무덤덤함' '학업성취지향' '예의를 지킴'과 같은 순서를 보이는데, 여학생은 '예의를 지킴' '학업성취지향' '재미있음' '무덤덤함'의 순서로 나오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든가 거리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무서움 등 긴장감을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긴장감은 초·중·고 대학생의 학교수준별로나 성별로 모두 동일하였다. 그런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무덤덤한 경향이 있었고, 여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 예의를 지킨다든가, 성적을 걱정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등 학업성취 지향적으로 되는 경향이 더 많았다.

표 11은 성인들이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 반응 경향을 보면 '불편함'이 30% 이상의 가장

표 9.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편안함	263(43.1)	78(52.6)	55(45.1)	42(29.6)	88(44.2)	103(43.7)	160(42.7)
① 편안함	233(38.2)	57(38.4)	53(43.5)	39(27.5)	84(42.2)	88(37.3)	145(38.7)
② 좋음	30(4.9)	21(14.2)	2(1.6)	3(2.1)	4(2.0)	15(6.4)	15(4.0)
2. 대화	141(23.1)	41(27.7)	25(20.5)	43(30.3)	32(16.1)	50(21.2)	91(24.3)
① 대화	94(15.4)	20(13.5)	15(12.3)	31(21.8)	28(14.1)	30(12.7)	64(17.1)
② 장난	47(7.7)	21(14.2)	10(8.2)	12(8.5)	4(2.0)	20(8.5)	27(7.2)
3. 술	88(14.4)	2(1.4)	15(12.3)	33(23.3)	38(19.1)	27(11.4)	61(16.2)
① 술	85(13.9)	2(1.4)	14(11.5)	32(22.5)	37(18.6)	26(11.0)	59(15.7)
② 돈	3(.5)	-	1(.8)	1(.8)	1(.5)	1(.4)	2(.5)
4. 코마음	62(10.1)	11(7.4)	19(15.6)	9(6.3)	23(11.6)	34(14.4)	28(7.5)
5. 걱정됨	20(3.3)	1(.7)	2(1.6)	5(3.5)	12(6.0)	3(1.3)	17(4.5)
6. 믿음	18(2.9)	2(1.4)	1(.8)	10(7.0)	5(2.5)	5(2.1)	13(3.5)
7. 경쟁심	18(2.9)	12(8.1)	5(4.1)	-	1(.5)	13(5.5)	5(1.3)
① 거리감	11(1.8)	9(6.1)	1(.8)	-	1(.5)	8(3.4)	3(.8)
② 경쟁	7(1.1)	3(2.0)	4(3.3)	-	-	5(2.1)	2(.5)
8. 기타	1(.2)	1(.7)	-	-	-	1(.4)	-
계	611(100.0)	148(100.0)	122(100.0)	142(100.0)	199(100.0)	236(100.0)	375(100.0)

범주 \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편안함	259(33.6)	148(34.3)	111(32.7)	123(32.1)	136(34.8)
① 편안함	236(30.6)	136(31.5)	100(29.5)	104(27.1)	132(33.8)
② 좋음	23(3.0)	12(2.8)	11(3.2)	19(5.0)	4(1.0)
2. 대화	189(24.5)	111(25.7)	78(22.9)	75(19.7)	114(29.2)
① 대화	163(21.1)	95(22.0)	68(20.0)	58(15.2)	105(26.9)
② 장난	26(3.4)	16(3.7)	10(2.9)	17(4.5)	9(2.3)
3. 술	149(19.3)	85(19.7)	64(18.8)	58(15.2)	91(23.4)
① 술	143(18.5)	80(18.5)	63(18.5)	55(14.4)	88(22.6)
② 돈	6(.8)	5(1.2)	1(.3)	3(.8)	3(.8)
4. 코마음	66(8.5)	31(7.2)	35(10.3)	47(12.3)	19(4.9)
5. 걱정됨	30(3.9)	14(3.2)	16(4.7)	15(3.9)	15(3.7)
6. 믿음	30(3.9)	17(3.9)	13(3.8)	22(5.8)	8(2.1)
7. 경쟁심	7(.9)	4(.9)	3(.9)	3(.8)	4(1.1)
① 거리감	5(.6)	3(.7)	2(.6)	2(.5)	3(.8)
② 경쟁	2(.3)	1(.2)	1(.3)	1(.3)	1(.3)
8. 기타	42(5.4)	22(5.1)	20(5.9)	39(10.2)	3(.8)
계	772(100.0)	432(100.0)	340(100.0)	382(100.0)	390(100.0)

표 10.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긴장감	157(26.8)	35(24.9)	35(29.6)	42(30.3)	45(23.5)	63(28.2)	94(25.8)
① 긴장감	53(9.1)	6(4.3)	14(11.9)	17(12.3)	16(8.3)	25(11.2)	28(7.7)
② 불편함	53(9.1)	13(9.2)	13(11.0)	13(9.4)	14(7.3)	21(9.4)	32(8.8)
③ 거리감	23(3.9)	3(2.1)	-	8(5.8)	12(6.3)	7(3.1)	16(4.4)
④ 문제야	15(2.5)	7(5.0)	3(2.5)	2(1.4)	3(1.6)	4(1.8)	11(3.0)
⑤ 무서움	13(2.2)	6(4.3)	5(4.2)	2(1.4)	-	6(2.7)	7(1.9)
2. 무덤덤함	112(18.9)	31(21.9)	28(23.9)	26(18.8)	27(14.1)	56(25.0)	56(15.3)
① 보통 학생	85(14.3)	26(18.4)	26(22.1)	16(11.6)	17(8.9)	43(19.2)	42(11.5)
② 무덤덤함	27(4.6)	5(3.5)	2(1.7)	10(7.2)	10(5.2)	13(5.8)	14(3.8)
3. 학업성취 지향	106(18.0)	27(19.2)	21(17.8)	18(13.2)	40(20.8)	42(18.8)	64(17.5)
① 성적 걱정	62(10.5)	20(14.2)	15(12.7)	13(9.4)	14(7.3)	27(12.1)	35(9.6)
② 모범생	44(7.5)	7(5.0)	6(5.1)	5(3.8)	26(13.5)	15(6.7)	29(7.9)
4. 예의를 지킴	102(17.3)	16(11.3)	17(14.4)	30(21.7)	39(20.3)	35(15.5)	67(18.4)
5. 재미있음	79(13.4)	31(22.0)	15(12.6)	9(6.6)	24(12.4)	20(8.9)	59(16.2)
① 재미있음	25(4.2)	19(13.5)	5(4.2)	-	1(.5)	9(4.0)	16(4.4)
② 좋음	24(4.1)	9(6.4)	5(4.2)	3(2.2)	7(3.6)	8(3.6)	16(4.4)
③ 대화	17(2.9)	1(.7)	4(3.4)	3(2.2)	9(4.7)	1(.4)	16(4.4)
④ 웃음	13(2.2)	2(1.4)	1(.8)	3(2.2)	7(3.6)	2(.9)	11(3.0)
6. 기타	33(5.6)	1(.7)	2(1.7)	13(9.4)	17(8.9)	8(3.6)	25(6.8)
계	589(100.0)	141 (100.0)	118 (100.0)	138 (100.0)	192 (100.0)	224 (100.0)	365 (100.0)

표 11.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불편함	107(30.7)	57(32.1)	50(29.3)	67(27.8)	40(37.5)
① 불편함	61(17.5)	33(18.6)	28(16.4)	36(14.9)	25(23.4)
② 싫음	30(8.6)	17(9.6)	13(7.6)	19(7.9)	11(10.3)
③ 술/스트레스	9(2.6)	2(1.1)	7(4.1)	7(2.9)	2(1.9)
④ 불만 있음	7(2.0)	5(2.8)	2(1.2)	5(2.1)	2(1.9)
2. 능력 있음	62(17.8)	29(16.4)	33(19.3)	43(17.8)	19(17.7)
① 능력 있음	47(13.5)	21(11.9)	26(15.2)	34(14.1)	13(12.1)
② 강함	15(4.3)	8(4.5)	7(4.1)	9(3.7)	6(5.6)
3. 성실함	49(14.1)	24(13.6)	25(14.6)	33(13.7)	16(14.9)
① 신중함	25(7.2)	15(8.5)	10(5.8)	15(6.2)	10(9.3)
② 성실함	24(6.9)	9(5.1)	15(8.8)	18(7.5)	6(5.6)
4. 대화	46(13.2)	26(14.7)	20(11.7)	32(13.3)	14(13.1)
5. 좋음 편안함	31(8.9)	14(7.9)	17(9.9)	22(9.1)	9(8.4)
① 좋음	15(4.3)	8(4.5)	7(4.1)	12(5.0)	3(2.8)
② 편안함	10(2.9)	4(2.3)	6(3.5)	7(2.9)	3(2.8)
③ 인자함	6(1.7)	2(1.1)	4(2.3)	3(1.2)	3(2.8)
6. 무관심	15(4.3)	7(4.0)	8(4.7)	11(4.6)	4(3.7)
7. 불쌍함	11(3.2)	5(2.8)	6(3.5)	9(3.7)	2(1.9)
8. 기타	27(7.8)	15(8.5)	12(7.0)	24(10.0)	3(2.8)
계	348(100.0)	177 (100.0)	171 (100.0)	241 (100.0)	107 (100.0)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능력' 있음 '성실함' '대화'가 모두 10%-20%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좋은/편안함' '무관심' '불쌍함'이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나 성별 하위집단에서 모두 '불편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들이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러한 불편감은 주로 직장 상사가 싫다든가, 직장 상사로 인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가, 직장 상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이러한 인식을 하는데, 연령이나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직장 상사가 능력이 있고, 성실하며, 대

화를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부하직원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장 상사와 있으면 불편하다는 표 11에서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편안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동시에 '배려함' 또한 '편안함'과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부담감' '권위적임' '성실함'이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30대에서는 편안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려함'이나, 40대 이상에서는 '배려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편안함'이 비슷한 비율로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을 보였다. '권위적임'이라는 반응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들

표 12.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편안함		82(24.9)	44(27.4)	38(22.3)	58(23.0)	24(30.3)
2. 배려함		78(23.7)	39(24.4)	39(23.0)	62(24.7)	16(20.3)
① 배려함		50(15.2)	23(14.4)	27(15.9)	39(15.5)	11(13.9)
② 따뜻함		28(8.5)	16(10.0)	12(7.1)	23(9.2)	5(6.3)
3. 부담감		41(12.4)	21(13.1)	20(11.7)	32(12.7)	9(11.4)
4. 권위적임		40(12.1)	10(6.3)	30(17.6)	31(12.4)	9(11.4)
① 근엄함		19(5.8)	7(4.4)	12(7.1)	14(5.6)	5(6.3)
② 권위있게 행동함		11(3.3)	2(1.3)	9(5.3)	10(4.0)	1(1.3)
③ 무서운 선행노릇		10(3.0)	1(.6)	9(5.3)	7(2.8)	3(3.8)
5. 성실함		39(11.8)	22(13.7)	17(10.1)	31(12.4)	8(10.1)
① 성실함		21(6.4)	9(5.6)	12(7.1)	17(6.8)	4(5.1)
② 똑똑함		12(3.6)	9(5.6)	3(1.8)	10(4.0)	2(2.5)
③ 활동적임		6(1.8)	4(2.5)	2(1.2)	4(1.6)	2(2.5)
6. 대화		25(7.6)	14(8.8)	11(6.5)	18(7.2)	7(8.9)
7. 무관심		12(3.6)	3(1.9)	9(5.3)	10(4.0)	2(2.5)
8. 기타		13(3.9)	7(4.4)	6(3.5)	9(3.6)	4(5.1)
계		330(100.0)	160(100.0)	170(100.0)	251(100.0)	79(100.0)

이 ‘배려함’의 반응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여자들은 ‘편안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과 반대로,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에 편안함과 배려함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도 부담감을 느낀다든가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등 부정적인 지각도 함께 나타났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

가족 및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 외에 낯선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13과 표 14이다. 표 13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인데, 먼저 학생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관심’이 4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편함’과 ‘거리감’이 각각 20%에 가까운 반응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배려함’과 ‘대화’가 포함되었다. 학교수준별로나 성별로 분석 하였을 때에도 모두 ‘무관심’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무관심’이 40% 가까운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거리감’과 ‘불편함’ 및 ‘배려함’이 순서적으로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나 성별 분석 결과도, 이러한 전체 경향과 일치하여 ‘무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생과 성인 모두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은 가치중립적으로 무관심한 경우가 10명 중에서 4~5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편하거나 거리감을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방을 예의바르게 대하며 친근하게 배려하는 긍정적인 자기의 모습도 학생과 성인 각각 10% 내외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배려하고 나머지는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불편하고 거리감을 갖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과 성인만이 아니라 성별로도 동일하였다.

외국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학생의 경우에 ‘부담감’이 약 30%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도 25%에 가까웠다. 이외에 ‘친절함’ ‘회피함’ ‘한국문화 소개’ ‘무관심’이 10% 내외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호기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담감’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초 중 대 학생들은 모두 ‘부담감’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범주로 확인이 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호기심’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여자는 ‘부담감’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성인 집단에서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반응 경향에서 2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는 범주로 ‘부담감’ ‘호기심’ ‘친절함’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담감’이 가장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호기심’이 가장 반응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호기심’이 가장 높고, 여자는 ‘부담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응 순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응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외국인과 함께 있

표 13.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무관심		243(44.7)	54(40.1)	38(37.4)	57(47.1)	94(50.4)	85(42.8)	158(46.0)
① 무관심		209(38.4)	37(27.5)	34(33.4)	49(40.5)	89(47.7)	69(34.8)	140(40.8)
② 회피함		34(6.3)	17(12.6)	4(4.0)	8(6.6)	5(2.7)	16(8.0)	18(5.2)
2. 불편함		108(19.9)	47(34.9)	22(21.8)	16(13.2)	23(12.5)	44(22.1)	64(18.5)
① 무서움		51(9.4)	31(23.0)	8(7.9)	5(4.1)	7(3.8)	24(12.1)	27(7.8)
② 불편함		42(7.7)	12(8.9)	14(13.9)	4(3.3)	12(6.5)	15(7.5)	27(7.8)
③ 냉정함		15(2.8)	4(3.0)	-	7(5.8)	4(2.2)	5(2.5)	10(2.9)
3. 거리감		102(18.8)	17(12.5)	28(27.8)	22(18.2)	35(18.8)	32(16.1)	70(20.4)
① 거리감		56(10.3)	11(8.1)	15(14.9)	10(8.3)	20(10.8)	22(11.1)	34(9.9)
② 경계심		45(8.3)	6(4.4)	13(12.9)	12(9.9)	14(7.5)	10(5.0)	35(10.2)
③ 상대적임		1(.2)	-	-	-	1(.5)	-	1(.3)
4. 배려함		44(8.1)	5(3.7)	7(7.0)	12(9.9)	20(10.8)	15(7.5)	29(8.4)
① 친근감		25(4.6)	3(2.2)	2(2.0)	8(6.6)	12(6.5)	8(4.0)	17(4.9)
② 배려함		11(2.0)	-	2(2.0)	4(3.3)	5(2.7)	3(1.5)	8(2.3)
③ 예의바름		8(1.5)	2(1.5)	3(3.0)	-	3(1.6)	4(2.0)	4(1.2)
5. 대화		31(5.7)	6(4.4)	1(1.0)	11(9.1)	13(7.0)	13(6.5)	18(5.2)
① 대화		18(3.3)	3(2.2)	1(1.0)	6(5.0)	8(4.3)	6(3.0)	12(3.5)
② 관심		13(2.4)	3(2.2)	-	5(4.1)	5(2.7)	7(3.5)	6(1.7)
6. 기타		15(2.8)	6(4.4)	5(5.0)	3(2.5)	1(.5)	10(5.0)	5(1.5)
계		543(100.0)	135(100.0)	101(100.0)	121(100.0)	186(100.0)	199(100.0)	344(100.0)

범주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무관심		215(37.6)	125(39.1)	90(35.7)	104(39.8)	111(35.5)
① 무관심		191(33.4)	111(34.8)	80(31.7)	99(37.9)	92(29.4)
② 회피함		24(4.2)	14(4.3)	10(4.0)	5(1.9)	19(6.1)
2. 거리감		155(27.0)	89(27.6)	66(26.3)	65(25.1)	90(28.7)
① 거리감		82(14.3)	47(14.6)	35(13.9)	27(10.4)	55(17.5)
② 경계심		69(12.0)	40(12.4)	29(11.6)	35(13.5)	34(10.9)
③ 상대적임		4(.7)	2(.6)	2(.8)	3(1.2)	1(.3)
3. 불편함		88(15.4)	48(14.9)	40(16.0)	27(10.4)	61(19.4)
① 불편함		50(8.7)	29(9.0)	21(8.4)	19(7.3)	31(9.9)
② 무서움		29(5.1)	12(3.7)	17(6.8)	6(2.3)	23(7.3)
③ 냉정함		9(1.6)	7(2.2)	2(.8)	2(.8)	7(2.2)
4. 배려함		59(10.3)	22(6.7)	37(14.8)	33(12.7)	26(8.3)
① 친근감		29(5.1)	12(3.7)	17(6.8)	19(7.3)	10(3.2)
② 예의바름		15(2.6)	4(1.2)	11(4.4)	6(2.3)	9(2.9)
③ 배려함		13(2.3)	4(1.2)	9(3.6)	8(3.1)	5(1.6)
④ 존중함		2(.3)	2(.6)	-	-	2(.6)
5. 대화		50(8.7)	34(10.5)	16(6.4)	28(10.8)	22(7.1)
① 대화		28(4.9)	20(6.2)	8(3.2)	15(5.8)	13(4.2)
② 관심		22(3.8)	14(4.3)	8(3.2)	13(5.0)	9(2.9)
6. 기타		6(1.0)	4(1.2)	2(.8)	3(1.2)	3(1.0)
계		573(100.0)	322(100.0)	251(100.0)	260(100.0)	313(100.0)

표 14. 외국인과의 함께 있을 때의 나

범주 \ 학생	전체 (%)	학교수준별 (%)				성별 (%)	
		초	중	고	대	남	여
1. 부담감	158(29.5)	38(27.3)	34(32.4)	32(27.6)	54(30.9)	37(18.7)	121(35.8)
① 부담감	85(15.9)	19(13.6)	16(15.2)	19(16.4)	31(17.7)	18(9.1)	67(19.8)
② 어려움	51(9.5)	13(9.4)	11(10.5)	12(10.3)	15(8.6)	15(7.6)	36(10.7)
③ 조용함	22(4.1)	6(4.3)	7(6.7)	1(.9)	8(4.6)	4(2.0)	18(5.3)
2. 호기심	131(24.5)	31(22.3)	22(21.0)	33(28.4)	45(25.7)	54(27.3)	77(22.8)
① 호기심	82(15.3)	16(11.5)	15(14.3)	23(19.8)	28(16.0)	30(15.2)	52(15.4)
② 대화	49(9.2)	15(10.8)	7(6.7)	10(8.6)	17(9.7)	24(12.1)	25(7.4)
3. 친절함	56(10.6)	12(8.6)	11(10.5)	12(10.4)	21(12.0)	20(10.1)	36(10.8)
① 좋음	34(6.4)	6(4.3)	5(4.8)	7(6.0)	16(9.1)	12(6.1)	22(6.5)
② 친절함	20(3.8)	5(3.6)	6(5.7)	4(3.5)	5(2.9)	7(3.5)	13(3.9)
③ 활발함	2(.4)	1(.7)	-	1(.9)	-	1(.5)	1(.3)
4. 회피함	52(9.7)	15(10.8)	10(9.6)	15(12.9)	12(6.8)	21(10.6)	31(9.2)
① 회피함	37(6.9)	11(7.9)	5(4.8)	12(10.3)	9(5.1)	16(8.1)	21(6.2)
② 불편함	15(2.8)	4(2.9)	5(4.8)	3(2.6)	3(1.7)	5(2.5)	10(3.0)
5. 한국문화 소개	52(9.7)	11(7.9)	11(10.5)	15(12.9)	15(8.6)	29(14.6)	23(6.8)
6. 무관심	49(9.1)	15(10.8)	10(9.5)	7(6.0)	17(9.7)	21(10.6)	28(8.3)
7. 외국어	22(4.1)	13(9.4)	5(4.8)	1(.9)	3(1.7)	10(5.1)	12(3.6)
8. 기타	15(2.8)	4(2.9)	2(1.7)	1(.9)	8(4.6)	6(3.0)	9(2.7)
계	535(100.0)	139(100.0)	105(100.0)	116(100.0)	175(100.0)	198(100.0)	337(100.0)

범주 \ 성인	전체 (%)	연령별 (%)		성별 (%)	
		39 세 이하	40 세 이상	남	여
1. 부담감	141(25.3)	91(28.0)	50(21.5)	46(18.2)	95(31.1)
① 부담감	66(11.8)	45(13.8)	21(9.0)	22(8.7)	44(14.4)
② 어려움	65(11.7)	39(12.0)	26(11.2)	21(8.3)	44(14.4)
③ 조용함	10(1.8)	7(2.2)	3(1.3)	3(1.2)	7(2.3)
2. 호기심	131(23.5)	76(23.5)	55(23.6)	52(20.6)	79(26.0)
① 호기심	91(16.3)	55(17.0)	36(15.4)	29(11.5)	62(20.4)
② 대화	40(7.2)	21(6.5)	19(8.2)	23(9.1)	17(5.6)
3. 친절함	122(21.9)	68(21.0)	54(23.1)	44(17.5)	78(25.6)
① 친절함	61(11.0)	32(9.9)	29(12.4)	27(10.7)	34(11.1)
② 좋음	35(6.3)	19(5.9)	16(6.9)	13(5.2)	22(7.2)
③ 활발함	22(3.9)	14(4.3)	8(3.4)	4(1.6)	18(6.0)
④ 반가움	4(.7)	3(.9)	1(.4)	-	4(1.3)
4. 무관심	60(10.8)	33(10.2)	27(11.6)	44(17.5)	16(5.2)
5. 회피함	44(7.9)	28(8.6)	16(6.9)	26(10.4)	18(6.0)
① 불편함	23(4.1)	14(4.3)	9(3.9)	14(5.6)	9(3.0)
② 회피함	21(3.8)	14(4.3)	7(3.0)	12(4.8)	9(3.0)
6. 외국어	22(3.9)	10(3.1)	12(5.1)	17(6.7)	5(1.6)
7. 한국문화 소개	16(2.9)	6(1.9)	10(4.3)	16(6.3)	-
8. 기타	21(3.8)	12(3.7)	9(3.9)	7(2.8)	14(4.5)
계	557(100.0)	324(100.0)	233(100.0)	252(100.0)	305(100.0)

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자기 인식은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인 부담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인 특징은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친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었으며, 이외에도 회피함이나 무관심 등이 추가되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네 측면, 즉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 주위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인식,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매우 흥미롭고 풍부한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결과들을 모두 논의하기보다는 분석된 내용들에 토대하여 특별히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서 시사되고 있는 토착심리의 뿌리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기 정의에서 관계 내 역할의 중요성을 ‘개별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로 관계 맥락 속에서 유동성있게 변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일관성’ 차원과 ‘자기의 유동성’ 차원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자기 정의에서 관계 내 역할의 중요성:
‘개별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차원

한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분석해 보면, 개별적인 자기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자기의 측면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 내의 개인 역할에 초점을 둔 자기 인식을 통해 확인된다. 예컨대 보통 때의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고려한다는 반응이 성인들은 두 번째로, 학생들은 다섯 번째로 많았다. 성인 경우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자 하였으나, 직장에서 부하직원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고 따뜻하게 배려하며 한편으로는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상사와 함께 있는 상황인지 부하직원과 함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관계에서의 역할이 자기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성적을 걱정하게 되고 모범생처럼 되는 등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자기자신과 또한 선생님에 대해 예의를 지키게 된다고 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자기 인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자기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리광을 피우고 편안함과 동시에 죄송하여 효도해야겠다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자기자신의 개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관계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측면에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개인이 처한 역할이 자기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다분히 유교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윤리로서 오륜(五倫)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오륜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관계에서의 윤리 규범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오륜의 도는 중용²⁾과 서경³⁾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관계에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오륜의 구체적인 지침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치나 역할에 맞는 예우나 대접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행의 뿌리를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5)에 의하면 신뢰형성에서 우리 관계가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관계문화가 깊게 뿌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정신건강도 개인의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와 연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되었는데, 이는 관계 내에서의 역할이 스트레스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개인중심보다는 역할중심(장성숙, 2005)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계문화이고, 자기도 이러한 관계적 자기의 형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신(2001)은 한국인의 자기, 가족,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을 통해, 서양이론의 틀로 한국인의 심리나 한국사회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한국사회의 관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기업 조직에서조차 발견되는 가족적 온정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의 확대(Kim & Choi, 1994)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관계 맥락 속에서 유동성 있게 변하는 자기 :
'자기의 일관성'과 '자기의 유동성' 차원

개인이 자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이나에 따라, 그러한 관계 맥락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유동성 있게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연구의 결과 밝혀졌다. 즉 자기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 2) 천하에 공통된 도가 다섯 가지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사이의 사 권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고, 지 인 용 세 가지는 천하의 공통된 덕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夫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德也 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 중용 20편).
- 3) 공통된 도는 천하와 고급에 함께 행해야 할 길인데, 서경에 보면 오륜이 있는데, 맹자가 말씀하신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고, 봉우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는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인은 이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며, 용은 이것을 힘쓰는 것이니, --- (達道者 天下古今所共由之路 卽書所謂五典 孟子所謂夫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是也 智 所以知此也 仁 所以體此也 勇 所以強此也 - 중용 20 편)

맥락에서는 일관성을 지니는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보통 때 자기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학생이든 성인이든 활발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데, 혼자 있을 때는 학생과 성인 모두 외롭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였다. 즉 보통 때와 혼자 있을 때 극단적으로 다른 자기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구체적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자기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자기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학생과 성인 모두 어려워서 회피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학생이나 성인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학생들 경우에 선생님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성인들 경우에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며 함께 있게 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무관심을, 외국인과 함께 있을 때는 부담감을 느끼는 자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혼자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느냐, 다른 사람 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자기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일관성을 지니는 것이라기보다 관계 역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성을 지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가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더욱 비중(Kim, 1994, 2004)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관계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에서 큰 차이가 있다(Kim, 1996, 1997; Kim & Park, 2004a, 2006)는 사실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의 거리, 관계의 강도, 관계의 질 등 각각의 관계 양상에 따라 개인이 갖게 되는 자기 인식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토착적인 자기 인식은, 개인 중심적인 서양인의 일관성을 지니는 자기개념과는 달리, 상황과 관계맥락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다.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관계 맥락 속에서 유동성 있게 변화하는 자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유교와 더불어 우리 문화의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의 기본 정신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 소승 불교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 사상이 무상관(無常觀) 부정관(不淨觀) 무아관(無我觀) 중에서 무상관과 개념적으로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상관이란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이것이 우주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여덟 가지의 고통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조차 영원한 것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관은 내가 없다는 깨달음인 무아관과도 연결이 된다. 무아관에서는 모든

4) 인생8고(人生八苦, the eight sufferings)=四苦(生老病死; birth, old age, sickness, death) + 四苦(愛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 怨憎會苦,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 구부득고 求不得苦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 五蘊 물질적 요소 느낌 표상 의지 의식이라는 다섯가지 에너지의 불균형)

현상들이 생겨나 머물고 변하다 사라진다⁵⁾고 보고, 사람의 마음도 우주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 머물고 변하다 사라진다⁶⁾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본래 없는 것이며, 일시적인 물질적 요소(色) 느낌(受) 표상(想) 의지(行) 의식(識)이라는 다섯 가지 에너지가 뭉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온(五蘊)으로 상징되는 이 다섯 가지가 균형을 잃으면 당연히 고통이 발생하고 마음 속에 혼란이 생기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의식의 균형이 생기면 그 때 행하는 행동이 도(道)이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관이나, 내가 없다는 무아관은, 한국 사람들의 관계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성있게 변화하는 자기 모습의 뿌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이며,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서의 심층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기 찾기’와 ‘자기 없애기’에 대해 열려 있기:
시작으로서의 맺음

克己復禮爲人 (극기복례위인)

이기심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 공자 -

- 5) 만상 성주괴공 (萬想 The characteristics of all external phenomena, 成住壞空 arising stability, decline, dissolution) 삼라만상은 생겨나서 머물고 변화를 거듭하다 결국은 사라진다는 의미.
- 6) 심상 생주이멸 (心想 Aspects of the mind, 生住異滅 arising, stability, differentiation, extinction) 인간의 마음도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의미.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해서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어진 인(仁)의 정신(김영, 2005)임을 상기해 볼 때, 유교주의에 기초한 동양에서의 건강한 자기의 모습은 개별자로서보다는 관계의 관략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문화를 토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조화를 이룰 때 그러한 균형감을 통해 바람직한 자기의 모습이 구축되고 사회적으로도 건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양 사회에서 인정하는 잘 기능하는 자기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가정을 인식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자기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간이라는 씨줄과 시간이라는 날줄을 엮어 봄으로, 자기 인식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해 보려 하였다. 여기에서 공간이라는 씨줄의 틀 속에서 찾아진 특성이 위의 첫 번째 논의 내용에 해당하는, 관계 역할 내에서 정의되는 자기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라는 날줄의 틀 속에서 찾아진 특성이 위의 두 번째 논의 내용에 해당하는, 관계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자기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개인의 속성에 제한하지 않고 관계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단의 조화와 질서에 기여하게 되는 자기의 기여는, 유교에서 사회 윤리로 확대되는 수기안인(修己安人⁷⁾의 정신과도 관련이 되

- 7) 수기안인(修己安人)은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편안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나 개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인 내에 머물지 않고 개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공동체 윤리를 내포한다.

어 보인다. 자기를 고정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성 변화를 거듭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공(空)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있는 것은, 소승 불교에서 무상관의 정신과 닮은 면이 엿보인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자기 인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인 정신이 뿌리하고 있는 동양의 심오한 정신 사상들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사색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 정신의 토대를 이루었고 현재 개인주의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의 안정된 자기를 형성하고 있다기보다, 집단 내의 관계 역동이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인의 ‘자기’ 모습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서구식 합리주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이상하게 비추어질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의 틀로 한국인의 자기 인식을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의 정신세계가 미성숙하다 못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개체적 측면에서 단순히 일관성이 없고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는 것이며 전체를 종합적으로 배려하는 또 다른 성숙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 동일한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도 서구적 사고의 틀과 잣대를 들이대느냐, 또는 동양적 사고의 틀과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송산대사(Seung Sahn, 1997)는 데카르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생각을 완전히 끊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가 생존하였던 수 천년 이전의 시기부터 자기에 대한 이해는 무수한 철학자

들의 관심사였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James는 자기가 ‘주체로서의 자기’와 ‘대상으로서의 자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의 구성 또는 자기의 기능 또는 자기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없다(무아관, 無我觀)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정신도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개인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서양의 사상적 기초와, 유교 불교 도교의 세계관을 토대로 집단의 조화를 존중하는 동양의 사상적 토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분석적인 자기와, 가변적이고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자기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 그러한 통합은 사회집단 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까지 자아가 확대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자기 속에 우주의 모든 섭리가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인간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양의 문화적 뿌리가 서양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양에 속한 나라들이 공통점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상진(1993)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리’ 의식은 가족주의가 확대된 것이며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라면, 일본인의 ‘와레 와레’는 가족의식의 확대라기보다 공동목표와 공동 활동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집단공동체 의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밀착을 더욱 강하게 내포한다. 한국인의 ‘정’은 허물이 없는 무경계 관계의 특징을 포함하며 인간적 심정주의에 기초한 인간관계에서 활성화 된다면, 일본인의 ‘넌조’는 만족을

제공해 주는 공동 활동을 통해 감정적 관계가 밀착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집단규범에 기초한 공동 활동 상황에서 활성화된다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가 사회에 따른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재삼 확인해 준다.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누적되어 있는 '자기 찾기'를 위한 사색과 검증의 결과들을 더듬어 볼 때, 또한 연구자를 더욱 당혹스러운 충격으로 몰아넣는 것은 '자기 없애기'의 치열한 작업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신에 찬 답의 당위성을 찾게 된다. 동시에 이 한 편의 논문으로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확인할 뿐이다. 여기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하나의 너무나 작은 시작에 불과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 (2005). 인터넷 세대를 위한 한문강의. 서울: 한울.
- 김의철, 박영신 (2001). 서장, 신뢰의 문화적 배경: 동서양의 비교.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신뢰의 구조: 동 서양의 비교. 13~61.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2001). 한국인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함의: 자기,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01~406.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 5권.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성백효 (1998). 대학 중용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양계민, 김의철 (2001). 한국인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자기 인식: IMF 시대 이전. 한국심리학회 2001년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61~370.
- 장성숙 (2005).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전현민, 노명래 (1991).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14~125.
- 정태연, 김기범, Gelfand, M. J. (2005). 문화의 새로운 차원 '경직성과 유연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01~116.

- 조금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공적 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한일 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 요인의 비교: 공적자기의식, 자기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12.
- 조혜자 (1998).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권력지각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지각 HICLAS 방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74~87.
- 차재호, 박재현 (1991). “우리”라는 표현 사용의 집합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51~357.
- 최상진 (1992).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 하나의 자기발견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63~274.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29~237.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정원, 이영호 (1998). 실제 자기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 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69~87.
- 함병미, 박영신 (2001). 한국인의 가족관계를 통해본 자기 인식: IMF시대 이후. *한국심리학회 2001년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1~376.
- 함병미,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람의 자기에 대한 표상: 혼자 있을 때와 보통 때의 자기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5~156.
- Dhawan, N., Roseman, I. J., Naidu, R. K., Thapa, K., & Rettek, S. I., (1995). Self-concepts across two cultures: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6), 606~621.
- Hamm, B. M., Park, Y. S., & Kim, U. (2001). Korean students and adults' self-concept: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13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amm, B. M., Park, Y. S., & Kim, U. (2002). Koreans self-concept in the family relationship: After the IMF period.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Hamm, B. M., Park, Y. S., Kim, U., & Oh, J. S. (2004a). Indigenous analysis of self-concep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58. August 2-6. Shaanxi

-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Hamm, B. M., Park, Y. S., Kim, U., & Oh, J. S. (2004b). Conception of parents, children and self: Comparison of a matched sample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406~407.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China.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 Hill.
- Kashima, Y., Kashima, E., Farsides, T., Kim, U., Strack, F., Werth, L., & Yuki, M. (2004). Culture and context -sensitive self: The amount and meaning of context-sensitivity of phenomenal self differ across cultures. *Self and Identity*, 3, 125~141.
- Kim, U. (1994).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self: With specific focus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lloquium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Kyoto, Japan, July.
- Kim, U. (1996). Life-span development in the post modern era: Indigenous analysis of self, relations, and achievements.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KPA, *Mind, machine & environment: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Korea, July.
- Kim, U. (1997). Conception of self and significant others: The indigenous perspective. Department of psychology,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April.
- Kim, U. (2001).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H. S. Aasen, U. Kim, & G. Helgesen(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245~278. Kyoyook kwahaksa.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In U. Kim, S. Aasen, & S. Ebadi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2004). Relational concept of 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behavior. Keynote address,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ly 31. Honolulu.
- Kim, U. (2005). The self, relationships, and trust in Confucian societi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perspectiv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Roma "La Sapienza," Dec. 22.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Greenfield, P. M., & Cooking, R. (Eds.). *Cognitive socialization of minority childre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Hillsdale, NJ. 227~258.

- Kim, U., & Park, Y. S. (2004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al self in East Asia: A challenge to Western conceptualizations of child development and attachment.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99.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Kim, U. & Park, Y. S. (2004b).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 ~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 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253.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Seung Sahn (1997). *The compass of Zen*. Boston & London: Shambhala.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 ~ 1391.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2. 2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7. 18

Conception of Self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ion of the self using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The self is viewed from four aspects: (1) conception of the self as an entity (the self in general, the self as an unique entity and the self when alone), (2) conception of self in the context of family (the self when with mother, father, children and spouse), (3) the self with the context of close and working relationships (the self when with friends, teachers, work superior and work subordinate), and (4) the self in context of the larger society (the self when with strangers and foreigners). A total of 1,465 respondents (623 elementary, middle,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 842) comple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authors. The results reveal two patterns of results. First, the conception of self in Korea is influence by one's role. Second, the conception of self in influenced by relationship and context and there is an emphasis on the flexibility and adjustment of the self to relationship and context. Implications of the conception of the self in context of relationships, roles, and contexts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Key words : Self, indigenous psychology, objective and subjective self, consistency and flexibility of the self, role-fulfillment